

수요기도회 <평신도 신학 강좌> 99강

요한계시록 1

20250730

계 1: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
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
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
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

1. 요한계시록은 '계시', '예언', '편지'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.

1) 계시란 그동안 숨겨졌던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 한다.

- (1) 하나님이 지금의 로마제국과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실 것이다.
- (2) 요한계시록에는 '큰 성 바벨론'과 '거룩한 성 예루살렘'의 두 왕국 사상이 나타난다.
- (3) 교회와 성도 역시 겉으로 보이는 거대함과 화려함보다 '거룩성'이 중요하다.
- (4)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왕국에서 살 것인지 선택을 요구한다.

2) 예언이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의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.

- (1) 교만한 로마제국과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예언이다.
- (2)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하는 '일곱 교회'와 성도들에게 벌어질 환란과 핍박에 관한 예언이다.
- (3) 큰 성 바벨론의 핍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다.

3) 편지는 전달되어서 회람되어야 한다.

- (1) 글쓴이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피난하여 편지를 쓰고 있고, 연약해 보이는 이 편지는 감시와 검열을 피해 이웃 교회,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한다. 복음은 한없이 약해 보인다.
- (2) 편지는 애정을 담아 전달되는 의사전달 도구이다. 지금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있다.
- (3) 편지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그 편지 내용을 들어서 읽을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을 상정합니다. 달란트와 책임에 따라 도우며 공존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나타냅니다.

계 1: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
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

2. 하나님은 알파(헬 알파벳의 처음)와 오메가(헬 알파벳의 마지막) 즉, 창조의 주체이시며 심판과 종말의 주체이십니다.

3.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. 창조주 앞에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

유한성을 깨닫게 되며,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다가 애곡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.

계 1: 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

4.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인 에베소, 서머나, 버가모, 두아디라, 사데, 빌라델비아,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교회들을 대표한다.
5. 2~3장에서 알다시피 칭찬받는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다.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는 금 촛대이다.

계 1: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

6. 천년설을 믿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네가 본 것(1장), 지금 있는 일(2~3장), 장차 될 일(4장 이하)로 해석한다.
7. 이러한 해석은 계시록의 본 주제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적용점을 흐리게 만든다.